

머리가 맑아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서 무슨 일든 잘 풀리게 만드는 마법 같은 주문이 있다. 바로 '100퍼센트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주문이다. 100퍼센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개선해야 할 점을 찾게 된다. 남 탓을 하면 불평불만만 쌓이게 된다.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한다. 대신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일의 주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상황은 개선되게 된다. 책임감이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리더

리더의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이다. 공(功)은 팀원들에게 돌리고 잘못은 자신이 책임지는 자가 진정한 리더이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따른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한 사람은 결국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 "제가 잘못했어요!"라는 한마디는 긍정적인 사람의 말이다. 이 말은 불편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협상을 진행시키며, 논쟁을 끝내고, 치유를 시작하고, 심지어 적을 친구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일은 매우 어렵다. 자신의 권위와 신뢰,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가 잘못했



책임질 줄 아는 리더



어요!"라는 말이 가져다주는 보상은 매우 크다. 건강한 인간관계, 긍정적인 시각, 정신적·육체적 치유효과가 바로 그것이다. 잘못했다는 말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할수록 점점 더 쉬워진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빚어진 진흙탕 싸움에서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민심창이가 되어서도 자기가 더 깨끗하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꼴을 김두한 의원이 보았더라면 한 번 더 통물을 뒤집어 써줬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을 지켜보면서 과거 조선시대의 정조와 홍국영이 떠오른다. 노론과 소론으로 양분되어 누구도 믿을 수 없던 정조는 홍국영을 '의리의 주

인'이라고 부르면서 총애했다. 정조는 홍국영에게 전권을 맡겨 정사(政事)를 처리하였으므로 어느 누구도 홍국영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홍국영의 뜻이 곧 정조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홍국영은 도승지 즉 지금의 비서실장도 겸직하여 임금의 뜻을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홍국영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신하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으며 관직의 임명권까지 장악하여 정권을 독점하였다. 이에 반발하는 신하들에 대하여 정조는 "홍국영과 대립하는 자는 역적이다."는 말로 홍국영을 싸고 들었다. 홍국영은 도를 넘어 정조의 생각마저도 바꾸려고

들었으며 이는 결국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홍국영은 권좌에 앉은 지 3년 만에 정조로부터 버림받고 낙향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다음해 33세의 젊은 나이로 병사(病死)하게 된다.

왕권정치였던 조선시대와 달리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통령은 실각(失脚)할 수밖에 없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는 거듭나야 한다. 지금의 정치인들의 행각은 조선시대의 당파싸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리당락(黨利黨略)과 차기 대권(大權)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국민의 안녕(安寧)은 뒷전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은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이제는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법의 힘으로 보여준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세계의 이목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심 끝에 내린 최선의 결정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대화합의 길로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인과 각계의 지도자들은 국민대화를 위하여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자신의 몫보다 더 적은 대가를 받는 책임질 줄 아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간절히 소망해 본다.*

누구나 쉽게 공부 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The Law of Liberty to be God

하나님이 되기 위한 자유율법

Look at the Lord every moment and love Him extremely.
▶ 초초로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을 바라 보아라. 그리고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라.

Smash to kill Satan, 'I' every moment.
▶ 매순간 나라는 의식의 마귀를 죽여서 박멸소탕하라.

Regard your neighbor's circumstances and mistakes as yours.
▶ 다른 사람의 상황과 잘못을 내 일처럼 여겨라.

Serve your neighbor as yourself.
▶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The four articles above are the representative items that can defeat Satan, 'Self-Awareness', with ease in a short time. That is to say, the Law above is the knock-out punch against Satan.

▶ 위에 네 덕목은 나라는 의식의 마귀를 짧은 시간에 쉽게 이길 수 있는 대표적인 덕목들이다. 다시 말해서, 위의 자유율법은 마귀를 대항하여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법이다.

It took God about six thousand years to develop this weapon. But it will seem to the ignorant somewhat worthless or insignificant. They may ignore this Law. This is because of their lack of insight.

▶ 이러한 무기를 개발하는 데 하나님은 6천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다소 가치없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인다. 그들은 이러한 자유율법을 무시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통찰력의 부족 때문이다.

As a matter of fact, as only the eye of a painter can fully appreciate a painting, so only a man of insight, or one enlightened, can place a high value on this Law.

▶ 사실, 오직 화가의 눈으로만 완전히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통찰력을 가진 사람만이 또는 깨어있는 자만이 이러한 자유율법에 높은 가치를 둘 수 있다.

As it is written above, the Law of Liberty seems ordinary at first glance. But, it is very difficult to put into practice. No one can obey this Law perfectly without self-sacrifice. Only in total self-sacrifice can this Law be kept. Therefore, this Law is a self-killing and Satan-killing law.

▶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자유율법은 처음 힐끗 보고서는 평범한 율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기 희생 없이는 그 누구도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 완전한 자기 희생으로만 이 법은 지켜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자신을 죽이고 마귀를 죽이는 법이다.*

by Alice

속담 속의 영생학 말이 써가 된다

조희성님께서 윤양전도관에서 시무했을 때 제단에 있지 않고, 제단과 좀 떨어진 마을에서 자취를 하고 계셨다. 매일 새벽 제단에 가는데 하루는 지름길을 철조망으로 막아 놓아 돌아서 가다가 늦게 도착하여, 단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훼방하는 자 좋지 않다."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이튿날 철조망을 친 집의 열두 살짜리 외아들이 떡 갑다가 불에 빠져 죽었다. 그 아이의 부친은 평소 전도관이라면 괜히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다가 급기야 자기 농토 안에 있는 땅이라는 핑계로 길을 막았던 것이다.

조희성님께서 그 집안의 애곡소리를 듣고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아이를 제가 책임지고 살려 줄 테니 그 아이 시신을 보자."고 하니 부친은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며 필필 뿔뿔 거절하기에 그만 돌아올 수밖에 없으셨다고 하셨다.

장례를 치를 때 유명한 무당을 불러와서 자리견이(푸닥거리)를 하니 그 무당은 "이 아이는 전도관 전도사를 미워하고 길을 막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였고, 아이의 부친은 "며칠 전에 전도사가 와서 죽은 아이를 내놓으면 살려주겠다고 해서 거절했는데, 지금이라도 전도사에게 부탁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무당이 "그때 전도사가 아이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주었더라면 틀림없이 살아날 수 있었

지만 이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시체가 너무 썩은 상태인지라 전도사를 불러와도 소용없다."라고 대답하였고, 조희성님도 아쉬워했다는 것이었다.

조희성님은 이와 같이 말한 그대로 되는 것을 본 이후부터는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으려고 각별히 조심하게 되셨다고 간증하셨다.

말이 써가 된다. 부모가 아무 생각도 없이 자식에게 '빌어먹을 자식'이나 '망할 자식' 등의 욕을 하는데 그 말이 써가 되어 정말로 자식들이 커서 이집 저집으로 기웃거리는 동냥치가 되거나 어떤 사업을 해도 재수에 얽이 붙어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왕 욕을 하려면 '잘 될 놈의 자식'이라든지 '부자 될 놈의 자식'이라고 고쳐서 말하는 게 좋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조희성님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등등 '죽겠네'로 끝맺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써가 되어 모든 인류가 죽어가는 것이 틀림없다고 직시했다. 그래서 말끝마다 '영생하겠네' 또는 '살겠네'로 고쳐서 말하고 '죽겠네' 소리를 하지 않는 운중을 전개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사망권을 쥔 마귀가 활개를 치지 못하는 지상천국 건설에 앞장서서 일을 하셨다.*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꾸기 의존 명사 ②

지난 호에 이어 의존 명사가 다른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보자.

3) '대로'

체언 뒤에서는 조사로 쓰이기 때문에 붙여야 하지만 용언 뒤에서는 의존 명사로 사용되어 띄어 쓴다.

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네 맘대로 행동하지 마라. / 될 수 있는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4) '중(中)'

'도중'의 뜻으로 쓰일 경우는 붙여 쓰고 '여럿 가운데 하나'를 가리킬 경우에는 띄어 쓴다.

예) 식사중에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은연중 압력을 가했다. /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들 중에서 골라라.

5) '판'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 때는 붙여 쓰고 관형사 뒤에 붙어 '일의 수효'를 나타낼 때는 띄어 쓴다.

예) 씨름판, 노름판, 살어름판 / 씨름 한 판, 장기 한 판

6) '덜'

동일한 성질의 집합으로 쓰일 경우는 복수 접미사로서 붙여 쓰고 성질이 다른 낱말이 내밀되어 복수형으로 나타낼 때에는 의존 명사로서 띄어 쓴다.

예) 사람들, 짐승들, 어서들 오너라 / 소, 말, 개, 돼지 들은 가족이다

7) '만큼'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에 붙어 '그런 정도로' 또는 '실컷'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로 보고 띄어 쓴다. 하지만, 체언 뒤에 붙어 비교를 나타낼 때에는 조사로 보고 붙여 쓰고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조사로 보고 붙여 쓴다.

예) 귀를 기울여야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 인제 별 만큼 별었다(의존 명사) /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문학 형식이니만큼(조사)*

이승우 기자



김만철 선생 탈북스토리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서

판매처: 교보문고, 도서출판 해인(032-343-9985)

김만철 선생 탈북스토리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서

1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탈북 식량과 자유만 있다면 다른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자

인도네시아의 무인도로 가자 그곳에서 정착하기 어렵다면 파푸아뉴기니로 가자 거기도 안 되면 아마존 삼림속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가자
아!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엔진고장 그리고 표류 일본열도에 흘러들어가던 후 극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이기신 하나님의 섭리!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에야 깨달았다



30년 만에 털어놓는 탈북 비화!!!

김만철 선생은

1987년 1월 김일성 공산정권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11식구를 몽땅 데리고 배로 탈북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북한사람들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하였다. 탈북 후 교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실상과 극적인 탈북과정을 강연하면서 강연료로 받은 돈으로 남해에 평화기도원을 세워 운영하였다. 하나님이 진실로 존재하는지 알기 위하여 신학대학원을 다니기도 하였지만 모순 투성이의 성경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더욱 의문만 생겨서 중도에 그만두었다. 승리제단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 교회 다니면서 생겼던 의문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